

지역과학기술에서 연계형 거점으로 패러다임 전환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지역혁신지원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성장기를 거쳐 지금은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에 걸쳐 구축된 18개 지역 테크노파크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구축된 지역기술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기술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조성된 10개의 지방과학연구단지도 지역의 과학기술역량을 확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지역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역량 증진과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기술 혁신체제는 어느 정도 기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투자 대비 성과의 미흡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불균형 해소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 구축된 지방과학기술의 기틀과 역량이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Paradigm Shift(사고의 전환)가 필요하다.

제주와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근무해온 필자는 1990년대 약 10년 동안 충청권 및 경인권 지역의 기술

보증기금에서 기술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충남테크노파크, 강원테크노파크 등에서 지역과학기술 진흥과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의 기획과 실행업무를, 2007년 8월부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연구성과 사업화, 벤처생태계조성, 글로벌환경건축 등과 관련된 기획 및 사업추진을 담당하다가 2013년 2월부터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한 해양플랜트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역 및 중앙 R&D 관련 주요 부처의 전담기관에서 근무하고 지역의 산학연관의 구성원을 접하면서 느꼈던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한 몇 가지 사고의 전환(Paradigm Shift = The way of thinking)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역을 범위가 아닌 연계형 거점으로

지역과학기술 및 산업정책에서 지역을 범위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역량의 기틀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하도록 기획해 왔다. 지역내 과학기술혁신 자원과 산학연관 구성원을 주축으로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내에서 자기완결형의 지역기술혁신체제를 운영해 왔다.

초장기에 지역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지역을 범위로 하여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의 지역 과



글_오영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 본부장
doitnow@innopolis.or.kr

글쓴이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City University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기술보증기금 기술, 충남테크노파크를 거쳐 강원테크노파크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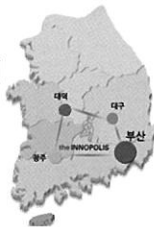


학기술 역량을 감안하면 지속발전가능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할 수 있는 임계규모의 자기완결형이라기보다는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외부의 혁신역량과 연계가 필요한 것 같다.

지역은 공공 과학기술역량이 집결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학 및 민간의 연구역량이 집결된 수도권과의 연계가 절실하다. 그러면 대덕과 수도권과의 연계를 통해 임계규모의 자기완결형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과 과학기술역량 확대는 한층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특구가 추진 중인 대덕-대구-광주-부산특구 간 연계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호 연계하여 지역 기술혁신역량을 국가혁신역량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사업

구분	부산	대덕	광주	대구
특화 분야	해양플랜트 산업 조선해양 기자재 그린해양기계	IT 융·복합 바이오 의학 나노 융·복합 신재생 에너지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 전지 자동차 부품 소재 스마트케어 기전	스마트IT 융합기기 의료용기기 소재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가치사슬에서 가치연계망으로

기존의 가치사슬구조인 기초·원천-응용-산업기술-사업화 등의 선형적 구조는 더 이상 복잡하고 융·복합 연구개발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지금의 시대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 케리하멜의 경영의 미래에서 언급한 Value web(가치연계망) 연구개발 및 기술의 사업화에 적합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선형적 구조보다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다양하게 상호 간 연계협력을 통해 통섭이나 융복합, 그리고 무형자산의 가치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잡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분야와 타지역과도 가치연계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역기술혁신체제가 지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한다.

테크노파크와 지역혁신센터 등을 통한 기업 및 지역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의 한계를 광역권 사업과 전국단위의 협회, 조합, 단체 등과 협력하는 가치연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 간의 연계와 수도권과의 협력도 확대될 것이고 지역의 기술혁신역량도 당연히 증진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가 우선

지난 10여 년간 지역에는 대학 내 기술혁신센터, 연

구실, 전략산업 중심으로 구축된 지역기술혁신센터 등에 건물 및 시설, 연구개발, 실험장비, 시제품 생산장비 등이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왔으며 정부출연연구소의 분원 및 본소가 지역에 많이 유치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출연연구소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도 있다.

연구소, 지역기술혁신센터 등의 공간 및 연구장비의 구축과 정부출연 연구소 분원의 유치가 기술혁신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너무나 하드웨어 구축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기술혁신의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 기술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하드웨어보다는 기술과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의 완성을 앞당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혁신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자와 연구자가 아이디어 및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휴먼웨어 중심의 지역사업도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

지역이 합쳐지면 국가가 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반으로 국가경제활성화가 달성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 간 비교열위와 우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된다.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과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투자와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물론 발상의 전환으로 그간의 문제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발상의 전환에 헌신과 노력, 그리고 협력을 전제로 한 실행이 더해져야 지역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이것이 국가경제 활성화로 확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성공은 주어진 예산과 정해진 기한, 그리고 참여하는 인력들의 헌신과 협력을 통해 성과가 창출되며,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성과에 만족하고 경제활성화에 주역인 기업이 매출증진, 이윤확대, 고용확대로 이어져야 비로소 사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역 내 산학연관 구성원들은 이를 위해 더욱더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 향후 지역 과학기술정책은 연구원, 과학기술자 중심으로 아이이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이 확대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SD**